



신록 눈부신 관방천의 5월 5월의 첫 휴일이자, 어린이날인 5일 담양군 관방천 일대에서 열린 '2013년 담양 대나무축제'에 관광객들이 몰려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다. 이번 축제는 오는 8일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세대·지역·이념 아우를 '문화 콘텐츠' 만들자

다시 5월이다. 계절의 여왕, 눈부시게 푸르른 5월, 하지만 '오월 광주'를 돌이켜보면 광주시민들은 가슴이 무거워진다. 80년 '그날' 이후 33년째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대사의 무거움 때문인지, 염속주의 때문인지 광주를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한다.

'광주 정신'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내고 미래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월 광주를 사회적·역사적 의미가 담긴, 세대를 초월한 '문화'로 승화해 누구나 공감하는 5월 정신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6·12면>



<1> 들어가며

현재로서는 5·18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전국에, 세계에 널리 알리자는 '꿈'은 아득해 보인다. 5·18과 8·15조차 헛갈리는 젊은 세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화 '26년'이 만들어진 것만 봐도 그렇다.

5·18에 대한 정부 투자는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일부 극우보수단체의 진실 왜곡은 5월 관련

단체는 물론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광주시와 5월 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가 5·18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벌이고 있는 기념·문화·교육·학술 등 다양한 사업도 겹돌고 있다.

'호남'이라는 정체성은 정부의 재정 지원 축소 및 무관심의 근거가 되고 있고, 상당수 광주·전남지역 중·고교생은 물론 대학생들조차 5·18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게 오늘날 광주의 현실이다.

5·18이 일어난 지 33년이 지났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는 5·18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게 지역의 중론이다.

5·18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삭제 국유보수단체의 진실 왜곡은 5월 관련

근에 한계가 있는 학술세미나 등으로는 5·18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전 세대가 교감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오늘날 5·18이 처한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세대·지역·이념'을 아우르면서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입을 모은다.

5·18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사업은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이다. 그럼에도, 콘텐츠가 나올 때마다 세대·지역·이념을 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화 '꽃잎'이 그랬고 '화려한 휴가', '26년'이 그랬다. 아이돌 그룹인 스피드의 '슬픈 약속' 뮤직비디오(11분15초 분량)도 국내·외에서 공감대를 일으켰다.

연극 '푸르른 날에'와 '짬뽕'은 무대에 올리거나 하면 매진을 기록하는 등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 콘텐츠는 시대 배경의 목직함

에도 불구하고, 염속주의를 벗어나 5·18을 효과적으로 되짚으면서 젊은 관객과 무리 없이 소통하며 5월 광주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있다. 전 국민이 공감하는 가치를 5·18 브랜드에 덧입힌다면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 작곡가 김종률(55) JR 미디어 대표는 "5·18을 소재로 한 뮤지컬을 준비 중인데, 3년 내 국내 공연을 시작으로 미국 브로드웨이까지 작품을 올릴 계획"이라며 "프랑스 혁명을 다룬 영화 '레 미제라블'이 큰 자국이 됐다. 5·18 정신의 전국화·세계화는 거창한 게 아니다. 작은 공연, 일지라도 의미를 담아내고 관객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전국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朴대통령 출국...내일 한미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을 위해 5일 오후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출국했다. <관련기사 5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7분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세워진 전용기 장관, 청와대 허태열 비서실장,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이정현 정무수석 등의 환송을 받고 출국길에 올랐다. 별도의 공식적인 출국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전용기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환송자들과 인사말을 주고 받으며 악수한 뒤 트랩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뉴욕에서 동포간담회

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가 첫 방문인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LA)를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7일에는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공동 기자회견도 연다. 8일에는 미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할 예정이다.

이번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이진희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를 포함 52명으로 구성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새대표 김한길

최고위원 신경민·조경태·양승조·우원식 선출

민주당 새 대표에 비주류인 김한길 후보<사진>가 선출됐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친노(친노무현)계 후보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주도권이 친노·주류에서 비주류로 넘어가면서 대대적인 당내 세력교체가 이뤄졌다.

김 후보는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61.72%로 이용섭 후보(38.28%)를 큰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관련기사 2·3·4면>

4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박병의 승부 끝에 신경민(17.99%), 조경태(15.65%), 양승조(15.03%), 우원식(15.01%) 후보가 나란히 지도부에 입성했다. 유성열(13.20%), 안민석(13.00%), 윤호중(10.11%) 후보는 지도부 진출에 실패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출신이 당 대표에 선출된 가운데 최고위원 4명은 수도권 2명, 영남 1명, 충청 1명으로 구성됐다. 신 최고위원은 전북 출신이지만 지역구가 서울이다. 선출직 당 대표나 최고위원에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인사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파별로는 유일한 친노 후보였던

을 최고위원 후보가 큰 표차로 최하위에 그치면서 친노 진영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 호남을 텃밭으로 삼아왔고, 친노세력이 주도해온 민주당에서 호남 지역구 및 친노 인사가 지도부에서 배제된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했다.

신임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60년을 지켜온 민주당의 영혼만 빼고 모든 것을 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며 "지금부터 변화와 혁신의 폭풍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안보와 민생현안 등의 해결을 위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기 회의체인 '여야 국정협의체' 구성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당내 비주류였던 김 대표가 이번 경선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대선 패배 후 당내에 확산한 '친노 책임론'과 '세대교체론'이 당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또 이날 전대에서 '민주당'으로 바꾸고 중도주의 노선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및 정강·정책 개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추진위원회

광주지역 정치권·시민단체 등 각계 참여...5월단체 "배제팬 기념식 불참"

광주지역 정치권과 5월 관련단체·시민사회단체가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 추진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5월 관련단체 등의 강력 반발에도 5·18 대체 기념곡 제정 의사를 굽히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자칫 올해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식이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운태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 5월 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은 이날 광주시 서구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에서 5·18 대체 기념곡 제정 반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국가보훈처의 5·18 대체 기념곡 제정을 위한 공모 예산 4800만원을 5·18 선양 동영상 제작

등 선양사업 예산으로 전환해주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5·18 33주년 기념식순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포함시켜 참석자 모두가 제창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가보훈처가 5·18 33주년 기념식이 끝나면 공식 기념곡 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데

이어, 아직까지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장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공식 식순에 포함되어야 하며 5·18기념식 공식노래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월 관련단체는 국가보훈처가 기존의 뜻을 굽히지 않을 땐 5·18 33주년 기념식에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30주년 기념식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이 식순에서 배제돼 국가보훈처와 5월 관련단체가 기념식을 각각 따로 치르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5월 관련단체는 또 국가보훈처장 자진사

퇴운동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하세요 국민행복시대가 열립니다

채무조정 고금리 전환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www.happyfund.or.kr

최대 50% 채무 감면으로 새 희망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 받고 6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출자(2013.2.28 기준)

접수기간: 2013.5.2~10.31(6개월 한시 접수)

접수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전국 농협, KB국민은행 지점

고금리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립니다'

신청자격: 연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대출자(2013.2.28 기준)

접수기간: 2013.4.1~9.30

접수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6개 시중은행 지점

문의: 1397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행복기금